

경관풍수에 입각한 묘지 후보지의 선정 : 대지공원묘지를 중심으로

육한석(강원대학교)

1. 서론

(1) 연구 목적

오늘날 한국인은 승조효친 사상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선조의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묘지·가족묘지·종중 문중 묘지는 관리 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특히 이를 금지하려고 하는 사회적 여론 때문에 사설 공원묘지 혹은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사설 공원묘지 혹은 공설묘지 내에 임의로 조성된 사이트를 그대로 이용하기 보다는 풍수지리적인 조건을 충족한 사이트를 가능한 선정하여 매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설 공원묘지나 공설묘지에 사망한 가족을 매장하고자 할 때 풍수지리적인 조건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설 공원묘지나 공설묘지 내에서도 풍수지리적인 조건이 고려되고 이에 따른 매장이 가능하다면 매장 풍습과 풍수지리적인 전통이 잘 유지되어 사회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2) 연구 지역과 방법, 연구동향

이 연구는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소재 <재단법인 대지공원묘지>에 대한 풍수지리적인 평가를 하여 사설 공원묘지의 경우도 풍수지리적인 조건이 고려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50,000 지형도와 1:5,000 지형도에 의한 <재단법인 대지공원묘원>의 지세 분석과 2005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1년간 수차례에 걸친 <재단법인 대지공원지>의 묘지에 대한 야외 조사에 의하여 경관풍수적 평가를 하게 된다. 어떤 특정 사이트에 대한 풍수지리적인 평가는 육한석(2004)이 전원주택 후보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바 있다.

2. 연구 내용

(1) 생극의 산세

생극면은 소속리산에서 발원한 응천이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 흐른다. 응천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우뚝 솟아 있는 수례의산(679m)이 소조이다. 수리산(505m)을 주산으로 하여 우백효과 좌청룡이 작은 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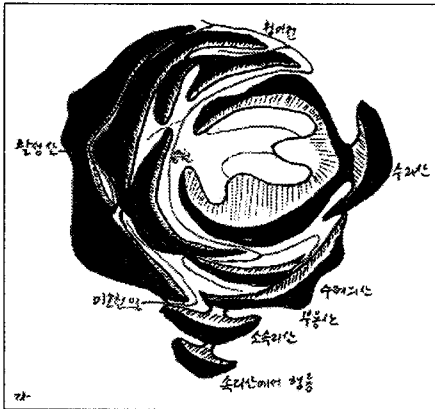


그림 1. 생극의 산세(“모란 반개”형)

를 이루고 건너편 서쪽에는 팔성산(378m), 마이산(471m)이 차례대로 남북으로 길게 전개된다. 수레의산은 한남금북정맥 상에 나타나는데 부용산, 소속리산과 연결되고 속리산에서 분지한 또 다른 일맥과 마주한다(그림 1).

(2) 경관 풍수적인 평가

〈재단법인 대지공원묘원〉은 크게 가, 나, 다 3개 구역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들 각각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과 일체화된 한국의 전통 경관 문화재 유형

평가기준	구역	“가” 구역	“나” 구역	“다” 구역
안산과 조산, 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물길과 수구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나타난다
산모습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나타난다
짜임새		짜여져 있다	느슨하다	짜여져 있다
정향		남향	서향	북향
용의 흐름과 입수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주산		희미하다	뚜렷하다	희미하다
좌청룡, 우백호, 각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산줄기의 앞뒤, 품격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혈처의 모습		불안정적이며 토질이 좋지 않다	안정적이나 토질이 좋지 않다	불안정적이며 토질이 좋지 않다

연구 지역 내에서 “나” 구역이 경관풍수적인 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나” 구역에 조성된 묘지들이 모두 외전상 남향을 향하고 있으므로 “가” 구역과 같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풍수지리의 3대 요소인 산, 수, 방위를 고려 할 때 〈대지 공원묘지〉는 “묘좌유향(서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묘지의 방향은 서향으로 하되 봉분의 방향은 남향으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 요약 및 결론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사설 공원묘지나 공설묘지는 약 8,000여기로서 대부분 국유림이나 공유림 안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들을 대부분 재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들을 앞으로 풍수지리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재개발하고 평분을 한다면 묘지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풍수지리에 의한 조건이 갖춰진 묘지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사설 공원묘지의 경우도 풍수지리적인 입지를 고려하여 묘지가 선정될 가능성은 있다.

참고문헌

- 옥한석, 2003, “안동의 풍수경관 연구 : 음택 명당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8(1), 70-86.
- 옥한석, 2003, “북한강 유역에 있어서 경관 풍수에 의한 전원주택 후보지의 선정,” 사진지리 13, 한국사진지리학회, 59-72.
- 옥한석, 2003, 강원의 풍수와 인물, 집문당.
- 옥한석·서태열, 2005, 행정중심 복합도시 도시개념국제공모작품 : 풍수에 입각한 평화생태도시 (Peaceful Ecopolio), 입선작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 옥한석, 2005, “경관풍수의 본질과 명당의 선정기준 :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지, 17(3), 22-32.